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미치는 영향

양돈규 · 김정인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미치는 영향

양돈규* · 김정인**

초 록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성희롱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충북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33명(남 : 125, 여 : 108)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t-검증,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문제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문제인식은 성희롱 행동경험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3)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들이 성희롱 문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생활 영역과 이성관계 영역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희롱 행동경험에 대해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직장생활 영역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성희롱, 양성평등의식, 성희롱 문제인식, 성희롱 행동경험

I. 서 론

성희롱 사건이 세인의 주목을 받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3년 모 대학에서 발생한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구제를 위해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ydk9498@hanmail.net)

** 다양성관리연구소 소장(kji820@hanmail.net)

이 의무화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이 점에 있어서는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일반직원 및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 7,8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4%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의 3.8%에 비해 증가한 비율이다. 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남성’의 1.8%가 성희롱을 경험한 반면, ‘여성’은 9.6%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성희롱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20대’의 7.7%, ‘30대’의 7.5%, ‘40대’의 4.3%, ‘50대 이상’의 2.7%가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응답함). 직급과 고용형태별로는 ‘일반직원’(6.9%)과 ‘비정규직’(8.4%)이 ‘관리직’(4.6%)과 ‘정규직’(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희롱 피해 경험을 보고하였다(2015, 여성가족부). 이처럼 성희롱은 직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으로, 외국의 자료를 보면 직장 여성의 42%에서 88%가 성적으로 희롱을 당해왔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gins & Scandura, 1996). 대학의 경우도 성희롱 피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 기관의 성희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몇 건 인지를 알아본 결과, 성희롱 사건이 1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응답한 기관은 4.2%였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기관의 평균 건수는 2.08회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학’(31.9%)과 지방자치단체’(10.2%)에서 1회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 많았다. 특히 발생 기관의 평균 건수를 보면 대학이 3.3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2015, 여성가족부). 국내 12개 간호대학 여학생 542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 기간 동안의 성희롱 피해 여부를 조사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들 중 97명(17.9%)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Lee, Song, & Kim, 2011).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약 20-40%가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ubin & Borgers, 1990; Sandler,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학창 시절 동안 적어도 40%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 성희롱에 노출된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왔다(Barak & Houston, 1992). 특히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itzgerald & Ormerod, 1993). 그러나 일부 자료에서는 남자들도 성희롱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남자 근로자들 중 14-19%가 직장에서 성적으로 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USMSPB, 1981; 1987).

성희롱이 갖는 문제점은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생활 포기과 같은 경력 측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업 및 사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성희롱은 피해자들의 성취 기회를 제한하고, 정신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Dansky & Kilpatrick, 1997; Fitzgerald, Buchanan, Collinsworth, Magley, & Ramos, 1999). 성희롱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와 두려움이고, 또 성희롱 피해자들은 빈번히 정신건강 상의 장애를 경험하며,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두통 등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Celik & Celik, 2007).

이렇듯 성희롱은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피해자로 혹은 가해자로 연루될 수 있는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여러 가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법적 및 제도적 제재로 인해 삶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성희롱 행동은 많은 경우에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상대방(흔히 이성<異性>)에게 행하는 성 관련 언동으로, 젠더 관점에서 보면, 남성 우위와 여성에 대한 비하 등의 인식을 포함하는 성 차별의식 및 고정관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성희롱의 발생 원인으로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성희롱 발생 원인

성희롱 발생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설명 모델들(자연 생물학적 모델, 조직 모델, 사회문화적 모델, 성역할이월 모델, 개인차 모델, 4요인 통합 모델 등)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상황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조직 모델, 사회문화적 모델 및 개인차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 모델에서는 조직의 위계구조와 구성원들 간의 권력불평등이 성희롱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MacKinnon, 1979). 조직은 수직적 성층, 즉 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 상하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 위계상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상급자(선배, 조교, 교수 등)는 하급자들(후배, 학생 등)에게서 성적인 만족감을 강제로 얻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내에서 엄격한 선후배의 위계를 강조하고 교·강사의 영향력이 큰 학과에서 성희롱 발생률이 높은 것은 이러한 지위 혹은 권력남용과 무관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모델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에 역점을 두고, 성희롱은 남녀 간의 문화적으로 합법화된 권력과 지위 차이의 산물이라고 가정하고 있다(Farley, 1978; MacKinnon, 1979). 이 모델에 입각해서 본다면 성희롱은 남성들이 자신들 위주의 규칙을 정하고, 사회적 신념이 남성들의 규칙을 합법화 혹은 정당화하는 보다 커다란 가부장 체제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Mackinnon, 1979). 그러므로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거시적 관점에서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모델에서는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성역할 기대에 의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남녀 간의 권력 차이가 성희롱을 유발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성희롱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다. 더구나 사회문화적 모델에 대한 설명을 입증하거나 조직의 권력에 의한 설명을 입증하려 해도 개인차 문제를 도외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희롱 설명 모델들 가운데 심리학에서 접근하는 한 방식으로서 개인차를 단위로 하고 피해자와 비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비가해자에 대한 지각과 개인 수준 특성을 통해서 성희롱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차 모델이다. 개인차 모델은 주로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들을 구분하고자 시도하였다(예, Pryor, 1987). 이러한 개인차 모델들은 가해자의 특성 및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특성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별 특성에 대한 탐색에서는 종종 성(gender), 연령, 인종 혹은 결혼 유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Defaur, 1990; Mansfield, Koch & Henderson, 1991; Neibuhr & Boyles, 1991).

개인차 모델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특성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것이지만 그가 속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할 기회를 갖게 되는 남성을 제시한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Pryor(1987)는 성적으로 희롱할 가능성(LSH)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는 이 척도상의 점수가 적대적인 성적 신념(Burt, 1980), 강간 통념의 수용(Burt, 1980), 성역할 고정관념(Burt, 1980), 미약한 여성주의적 태도(Smith, Feree & Miller, 1975) 등과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적대적인 성적 신념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등과 같은 성역할 관련 변인들이 결국은 양성평등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양성평등이란 사람은 누구나 남녀의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남녀의 지위로 인한 권리, 의무, 대우 등에서 평등함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의식은 양성(兩性)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같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다(김필식 외, 2003).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은 성역할 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성역할 태도는 여성과 남성의 적절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신념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양성평등의식의 요소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인 가정생활 영역, 직업 및 직장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인 직장생활 영역, 사회적 구조나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평등과 성차별의 갈등적 요소에 대한 태도를 탐지하는 제도 및 정책 영역, 남성과 여성의 이성관계 및 대상화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태도인 이성관계 영역,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대인관계, 사회문화적으로 승인되어지는 고정관념적 속성들에 대한 승인 정도를 다루는 사회문화 영역 등이다(안상수 등, 2008). 따라서 이것은 ‘여자와 남자는 이리이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역할 태도 구성개념은 특히 성평등주의 내지는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와 연결된다.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sex), 사회적 성(gender)에 근거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률 및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으로 전통적 관념에 의해 여성들이 겪는 독특한 억압 형태라 볼 수 있다(민경환, 1989). 여성들이 처한 불평등적 요소가 첨단 과학문명 시대를 자랑하는 오늘날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데에는 오랜 과거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서 사회구조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의 영향이 크다(윤병해, 고재홍, 2006).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문화적 가치관이 성적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결합하여 남성의 권력과 공격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강간-허용적 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sher & Tomkins, 1988). 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결국 전통적인 성별 역할로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성, 공격적인 남성 그리고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계율을 강화함으로써 성별 격차를 확대한다. 사회의 가부장적 속성은 성별 불평등과 성역할 고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지속적인 발생과 합리화에 작용한다(Belknap, 2001).

강간범에 대해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생물학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가 여성의 종속과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를 통해서 성폭력을 지지하는 사회·문화적 집단에서 획득된 행동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Scully, 1990). 결국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기저에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신체와 자유를 침해하는 성희롱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것은 현 사회가 전반적으로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고 성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리를 지지하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이 주로 피해자이고 약자가 되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성적 공격자들은 성적인 공격을 범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 많이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Koss & Dinero, 1988; Malamuth, Check, & Briere, 1986). 특히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은 적대적이라는 성적 신념을 가지고 있고, 성희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승인하며, 공감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며, 여성주의 태도상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ryor, 1987).

3. 성희롱 행동 인식

성희롱 행동에 대한 지각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의 차이(예,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아니면

성희롱 상황을 행동 유형(언어적 vs 육체적)에 따라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성희롱 문제를 이해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기여를 해왔다. Perry, Schmidtke 및 Kulik(1998: 443-460)의 연구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이성에게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영란 등(2013: 40-50)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성희롱 인식과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들보다 높았으며, 또한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평등의식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을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들이 성평등과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서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성희롱의 피해 대상이 주로 여성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Koenig와 Ryan(1986: 535-549)은 성희롱에 대한 지각에서 남녀 간의 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8가지 유형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지각 내용을 분석한 결과, 3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서 성 고정관념적인 농담이나 묘사, 성과 관련된 짓궂은 농담, 달갑지 않은 시선이나 몸짓 등을 성희롱으로 보는 비율이 낮았다. 이것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성희롱의 유형 중 행위의 심각성이 비교적 덜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성희롱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조직 내의 남녀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희롱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및 행동의 차이는 잠재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남자들의 자기-방어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수용과 성역할-관련 태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성들의 경우에 성희롱에 대한 지각 또는 판단의 역치가 높다는 것(육체적 성희롱과 같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만을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태도)은 그만큼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형태의 성희롱으로 인식되는 사회문화적 성희롱 행동을 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대학생 시기에 건전한 성태도의 확립은 보다 안전한 개인적 및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왜곡된 태도에 의해 흔하게 나타나는 성적 행동 중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성희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시기의 성희롱 경험은 피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및 신체적 측면에서의 고통과 상처로 인하여 학생 개인의 성장과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유문숙, 박지원, 유미애, 2013). 성희롱은 남녀 간 혹은 개인 간의 사소한 언행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성별의 문제이며,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종속된 사람에게 원치 않는 성적 언어와 행동을 할 때 일어난다(Ryan & Sylvia,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실제로 양성평등의식(성평등의식),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이하 ‘성희롱 문제인식’) 및 성희롱 행동경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특히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양성평등의식 및 그 하위요인들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문제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양성평등의식, 성희롱 문제인식 및 성희롱 행동경험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3.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은 성희롱 문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은 성희롱 행동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는 충북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3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이 108명(46.4%)이었고, 남학생은 125명(53.6%)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학생은 학내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위에 의한 영향력(권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은 관계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은 2학년이 116명, 3학년이 70명, 4학년이 47명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양성평등의식, 성희롱 문제인식, 성희롱 행동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1)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은 2008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일반인용 성인지력척도(단축형)’의 하위 척도 중에서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총 15개 문항)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 영역(가정생활 영역, 직장생활 영역, 제도 및 정책 영역, 이성관계 영역, 사회문화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를 확인한 결과 .866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2001년 여성부의 ‘2001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양돈규 등(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희롱 경험을 묻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언어적 성희롱 6개 문항, 시각적 성희롱 3개 문항 및 신체적 성희롱

3개 문항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성희롱 문제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이 문항들(12개)에서 제시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후에 각각의 문항별 ‘문제가 전혀 없다(1점), 문제가 조금 있다(2점), 문제가 많은 편이다(3점), 문제가 매우 많다(4점) 등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성희롱 행동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이 문항들(12개)에서 제시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은 후에 각각의 문항별 경험을 전혀 없음, 1회, 2회, 3회 등의 순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 가 각각 .943, .90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문제인식이 성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의식, 성희롱 문제인식 및 성희롱 행동경험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들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및 성희롱 문제인식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및 그 하위요인들의 차이

성별에 따라 양성평등의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 간 양성평등의식 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집단이 남학생집단에 비해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7.14, p < .01$).

〈표 1-1〉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수준의 차이

변인	성별(사례수)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
양성평등의식	남학생 (125)	3.26 (.578)	.56	-7.14**
	여학생 (108)	3.82 (.618)		

** p<.01

성별에 따라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하위영역)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 간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의 차이

변인	성별(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가정생활영역	남학생(125)	3.67	.738	.34	-3.61**
	여학생(107)	4.02	.722		
직장생활영역	남학생(125)	3.33	.845	.38	-3.45**
	여학생(108)	3.71	.827		
제도 및 정책 영역	남학생(124)	2.79	.925	.95	-8.63**
	여학생(107)	3.75	.759		
이성관계영역	남학생(124)	3.70	.879	.46	-4.15**
	여학생(108)	4.16	.795		
사회문화영역	남학생(125)	2.75	.894	.68	-5.77**
	여학생(108)	3.44	.918		

** p<.01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 간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 모두에서 일관되게 여학생집단이 남학생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성관계 영역과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의식은 남녀 모두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문화 영역과 제도 및 정책 영역에서의 의식은 다른 영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간의 의식의 차이도 제도 및 정책 영역 ($t=-8.36, p<.01$)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은 사회문화 영역($t=-5.77, p<.01$)이었다.

2) 성별에 따른 성희롱 문제인식의 차이

성별에 따라 성희롱 문제인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남학생집단 및 여학생집단 간 성희롱 문제인식 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성별에 따른 성희롱 문제인식 수준의 차이

변인	성별(사례수)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
성희롱 문제인식	남학생(125)	3.30(.718)	.21	-2.46*
	여학생(108)	3.51(.591)		

* $p<.05$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희롱 문제인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집단이 남학생집단에 비해 성희롱 문제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6, p<.05$).

2. 양성평등의식, 성희롱 문제인식 및 성희롱 행동경험 간의 상관관계

양성평등의식, 성희롱 문제인식 및 성희롱 행동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양성평등의식, 성희롱 문제인식 및 성희롱 행동경험 간의 상관

변인들	양성평등의식	성희롱 문제인식	성희롱 행동경험
양성평등의식		.218**	-.269**
성희롱 문제인식			-.333**

** p<.01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문제인식 간의 관계($r=.218$, $P<.01$),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행동경험 간의 관계($r=-.269$, $P<.01$), 그리고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 간의 관계($r=-.333$, $P<.01$) 등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하위영역)들과 성희롱 문제인식 및 성희롱 행동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과 성희롱 문제인식 및 성희롱 행동경험 간의 상관

변인들	성희롱 문제인식	성희롱 행동경험
가정생활 영역	.252**	-.159*
직장생활 영역	.173**	-.290**
제도 및 정책 영역	.074(n.s.)	-.168*
이성관계 영역	.250**	-.232**
사회문화 영역	.121(n.s.)	-.170**

*p<.05, **p<.01, n.s. =non significant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희롱 문제인식과의 관계에서는 가정생활 영역($r=.252$, $p<.01$), 이성관계 영역($r=.250$, $p<.01$) 그리고 직장생활 영역($r=.173$, $p<.01$) 등의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동경험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하위요인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장생활 영역($r=-.290$, $p<.01$) 및 이성관계 영역($r=-.232$, $p<.01$)과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성희롱 문제인식에 대한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의 영향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하위영역)들이 성희롱 문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성희롱 문제인식에 대한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기준변인	예언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ΔR^2
		B	Std.Error	Beta		
성희롱 문제인식	가정생활영역	.138	.068	.156	2.04*	.058
	이성관계영역	.119	.059	.156	2.03*	.075

* $p < .05$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 중에서 가정생활영역($R^2 = .058$, $p < .05$)과 이성관계 영역($R^2 = .017$, $p < .05$)만이 성희롱 문제인식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희롱 행동경험에 대한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의 영향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하위영역)들이 성희롱 행동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성희롱 행동경험에 대한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기준변인	예언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ΔR^2
		B	Std.Error	Beta		
성희롱 행동경험	직장생활영역	-.280	.062	-.291	-4.538**	.085

** $p < .0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성평등의식 하위요인들 중에서 직장생활영역($R^2 = .062$, $p < .01$)만이 성희롱 행동경험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 문제인식 및 성희롱 행동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문제인식에서 성별 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양성평등의식 및 그 하위요인(하위영역)들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및 성희롱 문제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집단이 남학생집단에 비해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14, p<.01$). 또한 성별에 따라 성희롱 문제인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여학생집단이 남학생집단에 비해 성희롱 문제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6, p<.0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이었음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여자 대학생집단이 남자 대학생집단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높고, 동시에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도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성희롱의 피해 대상이 주로 여성인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성평등 및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던 이영란 등(20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하위영역)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전반적으로 사회문화 영역과 제도 및 정책 영역에서 남녀 모두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의식 수준이 낮았으며, 또한 남녀 간의 의식의 차이 역시 제도 및 정책 영역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사회문화 영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그런대로 구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성차별이 크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양성평등의식 교육의

주안점은 이 영역에 대한 개선에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우리 사회가 제도 및 정책 영역에서 여전히 성차별적 관행이 존재하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의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양성평등의식, 성희롱 문제인식 및 성희롱 행동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문제인식 간의 관계($r=.22, p<.01$),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행동경험 간의 관계($r=-.27, p<.01$), 그리고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 간의 관계($r=-.33, p<.01$) 등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문제인식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낸 본 연구 결과는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평등의식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이영란, 김경미, 최소은, 201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남성중심문화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의식 결여로 인하여 여성을 차별화하는 고정관념과 연결되어 성희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문희경, 2009)를 고려할 때, 대학생들에게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남녀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 행동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성희롱 문제인식이 낮은 경우에 성희롱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문제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문제인식 모두 성희롱 행동경험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것은 향후 성희롱 예방을 위해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하위영역)들이 성희롱 문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생활 영역과 이성관계 영역만이 성희롱 문제인식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이 가부장적 사고에 근거한 남성중심적 가정문화와 남성의 권위 및 여성의 정숙과

순종을 강요하는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 사회 혹은 대학 내에 만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만큼 성희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성희롱 문제인식 향상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에서 가정생활 영역 및 이성관계 영역에서의 의식 변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성희롱 행동경험에 대해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하위영역)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직업 및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직장생활 영역만이 성희롱 행동경험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모든 하위요인(하위영역)들이 성희롱 행동경험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직장생활 영역만이 유의미한 예측인이었다.

양성평등의식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르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믿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안윤정, 2014). 이와 관련하여, 대학 시기의 성희롱 경험은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적 및 신체적 측면에서 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학생 개인의 성장과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유문숙, 박지원, 유미애, 2013)는 사실과 성희롱 행동의 대부분이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성희롱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의식 및 그 하위요인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생활 영역과 이성관계 영역에 관한 의식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성희롱 행동(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영역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는 충청북도 지역의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우리 사회의 전반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사회 집단 및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에 양성평등의식, 성희롱 문제인식, 성희롱 행동경험 등에 대한 추가적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이 변인들을 설명하는 지식과 이론이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성희롱 문제인식을 중재(mediator) 변인 혹은 조절(moderator) 변인으로 설정하여 모델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정희(2013).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2007).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인(2000). 성희롱 행동의 이해와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2006).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간이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377-397.
-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2001). 성희롱 문제 지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 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22.
- 김필식, 김금운, 김정숙, 박영희, 서리나, 송경용, 오세근, 이석주, 이주희, 전의찬, 황광연(2003). 21세기 사회 속에서의 여성. 서울: 양서원.
- 문희경(2009). 대학생의 성희롱 예방·대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경환(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46-168.
- 안상수, 김이선, 박군석, 이상화, 김정인(2008). 성인지력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안윤정(2014). 대학생의 역할지향성과 양성평등의식, 일희망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1(10), 167-193.
- 양돈규, 박명실(2008). 성희롱 행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차이.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32집, 109-120.
- 여성부(2001). 2001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 윤병해, 고재홍(2006). 양가적 성차별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단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영란, 김경미, 최소은(2013).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수준 및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40-50.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08). 성인지력척도(KGAS) 개발연구보고서.

- Barak, A., Fisher, W., & Houston, S. (1992). Individual difference correlates of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 17-37.
- Belknap, Joanne. (2001).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Belmont, CA: Wadsworth Group.
-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elik, Y., & Celik, S. S. (2007). Sexual harassment against nurse in Turkey. *Journal of Nursing Schaiaship, 39*(3), 330-336.
- Dansky, B. S. & Kilpatrick, D. G. (1997). Effects of sexual harassment. In O'Donohue, William (Ed), *Sexual Harassment: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52-174). Needham Heights, MA, US: Allyn & Bacon.
- Defaur, D. C. (1990). The interface of racism and sexism on college campuses. In M. A. Paludi(Ed.), *Ivory power. Sexual harassment on campus*. New York: SUNY.
- Farley, L. (1978). *Sexual Shakedown: The Sexual Harassment of Women on the Job*. New York : McGraw Hill.
- Fitzgerald, L. F., Buchanan, N. T., Collinsworth, L. L., Magley, V. J., & Ramos, A. M. (1999). Junk logic: The abuse defense in sexual harassment litigation.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5*(3), 730-759.
- Fitzgerald, L. F., & Ormerod, A. J. (1991).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The influence of gender and academic contex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281-29.
- Koenig, S., & Ryan, J. (1986). Sex differences in levels of tolerance and attribution of blame for sexual harassment on a university campus. *Sex Roles, 15*, 535-549.
- Koss, M. P., & Dinero, T. E. (1988). Predictors of sexual aggression among a national sample of male college student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528*, 133-147.

- Lee, S. K., Song, J. E., & Kim, S. (2011).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of Korean nursing students. *Asian Nursing Research*, 5, 170-176.
- MacKinnon, C. A. (1979).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alamuth, N., Check, J. V. P., & Briere, J. (1986). Sexual arousal in response to aggression: Ideological, aggressive, and sexu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30-340.
- Mansfield, P. K., Koch, P. B., & Henderson, J. (1991). The job climate for women in traditionally male blue-collar occupations. *Sex Roles*, 25, 63-79.
- Mosher, D. L., & Tomkins, S. D. (1988). Scripting the macho man: Hypermasculine socialization and enculturation. *Journal of Sex Research*, 25, 60-48.
- Neibuhr, R. E., & Boyles, W. R. (1991). Sexual harassment of military personnel.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5, 445-457.
- Perry, E. L., Schmidtke, J. M., & Kulik, C. T. (1998). Propensity to sexually harass: An exploration of gender differences. *Sex Roles*, 38(5), 443-460.
- Pryor, J. B. (1987). Sexual harassment proclivities in men. *Sex Roles*, 17, 269-290.
- Ragins, B. R., & Scandura, J. A. (1992, May).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exual harassment. Paper presented at the 1992 Society for Industrial/Organizational Psychology conference, Montreal, Canada.
- Rubin, L. J., & Borgers, S. B. (1990). Sexual Harassment in universities during the 1980s. *Sex Roles*, 23, 397-410.
- Ryan, J., & CSylvia, K. (1991). Risk and ideology in sexual harassment. *Sociological Inquiry*, 61, 231-241.
- Sandler, B. R. (1997). Student-to-student sexual harassment. In B. R. Sandler & R. J. Shoop(Eds.), *Sexual Harassment on Campus: A Guide for administrators, Faculty, and Students* (pp. 50-65). Needham Height, MA: Allyn & Bacon.

- Scully, D. (1990).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Boston : Unwin Hyman.
- Smith, E. R., Feree, M. M., & Miller, F. (1975). A short scale of attitudes towards feminism.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6, 51-56.
- U. S.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1981). *Sexual harassment of federal workers: Is it a problem?*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 S.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1987). *Sexual harassment of federal workers: An update*. Washington, DC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Vaux, A. (1993). Paradigmatic assumptions in sexual harassment research: Being guided without being misled. Special issue: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16-135.

Abstract

**The Effects of Gender Egalitarianism
On Perceived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ly Harassing Behaviors**

Don-Kyou, Yang* · Jeong-I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networks to support single-parent families and present measures for operating networks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and integrated services in response to policy demands for single-parent families. To examine current state of network, survey data collected from 23 centers that offering social services to single parent families was utilized. To figure out critic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we conducted focused group interviews with 15 researchers and people concerned.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and FGI, following strategies were suggested: (1) to facilitate institutions'capabilities for networking, competencies for both staffs and organizations' toward networking should be strengthened, (2) to meet diverse demands of single parent families, more supportive programs must be developed, and (3) build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public sector is needed for intensify network system to improving supports for single parent families.

Keywords : sexual harassment, gender egalitarianism, perceived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sexually harassing behaviors

* Faculty of General Education, Semyung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for Diversity Management